나주시 혁신농정 '돌아오는 농촌' 박차

직불금·수출 확대·스마트 농업 도입 소득 증대·유통 체계 강화 등 성과 수출·가공 어우러진 산업으로 육성

나주시가 돌아오는 농촌을 현실화하기 위해 농 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 농어민 공익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4 만여 농가에 26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대표 농축산물인 나주쌀, 나주배 '천년이음배', 프리미엄 한우 '들애찬한우'의 생산과 유통체계도 강화했다.

친환경 재배 기술과 공동 방제 시스템 도입, 산 지유통센터 확충,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용 등 으로 품질과 신뢰도를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 외 수출도 늘어났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 호주, 프랑스 등 8개국 13개 현지 유통업체와 4470만 달러 규모의 농축산 식품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나주배와 쌀, 배즙, 김, 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나주배는 EU와 동남아 시장 진출로 글로 벌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GAP 인증 농가 확대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서 외국 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2년 32명에서 올해 800



남도의 젖줄 영산강 유역에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가 나주가 농도 전남의 대표 지역임을 보여준다.

명으로 확대하며 수확과 재배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과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교육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농업 인재를 키 우며 농촌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는 못난이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 으로 전환하는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80명의 고용 창출과 165억원 이상 의 매출 효과가 기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며 3년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나주시는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농가 소독 지원, 이동 통제, 예방 백신 접종과 교육 등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인 온라인 쇼핑몰 '나주 몰'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과 특산품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제공하며 2024년 연 매출 11억원을 기 록, 1년 만에 250% 성장했다. 전남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우체국쇼핑 내 나주관을 개설하며 총 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 전국 단위 대표 농산물 플 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정책 성과는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도 확인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을 단순한 생산이 아닌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을 단순한 생산이 아닌 수출·가공·환경·문화가 어우러진 산업으로 발전시 키고, 청년과 여성 주도의 스마트 혁신농업으로 미래 100년 농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공공배달앱 '먹깨비' 매출 100억 돌파

전남 매출 1위…'축제 특수' 효과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전남도 민관협 력형 배달앱으로 운영된 2022년 7월 이래로 총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남에서 매 축 1위다.

매출 100억원 신화의 성공 비결은 강진군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자체 할인이벤트를 통해 노 린 '축제 특수'이다.

먹깨비는 강진군 축제의 필수 동반자로서 축제가 시작됨과 함께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알뜰한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의 호응을 얻는다.

지난 10월 25일 지난 2일까지 제10회 강진 만 춤추는 갈대축제'개최를 기념해 추진한 공 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종 근됐다

이벤트가 진행된 9일간 공공배달앱 먹깨비 앱을 통해 집계된 주문 수는 7198건과 2억7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과 대비해 주문수와 매출액 각각 36%와 49%가 증가했다.

먹깨비 입점 업체의 가맹점주 A씨는 "먹깨비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 강진군 경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효자 앱"이라며 "앞으로도 축제나 주말, 연휴 같은 때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함께 웃을 수 있는 이벤트를 이어 나가 줬으면한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매주 토·일요일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에 대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주말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현장.

장성군,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성료

23회 교육에 1353명 학생 참여

"청소년 여러분, 마약은 평생 멀리하세요." 장성군이 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는 총 23회 교육에 1353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마약의 폐해와 피해 사례, 올바른 대처법, 신고 방법 등을 알려줬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 교육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고인돌전통시장, 8일 '고객감사 대잔치'

노래자랑·경품추첨·초대가수 공연

화순군이 8일 오후 1시 30분 화순고인돌전통 시장에서 한 해 동안 시장을 찾아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고객감사 대잔치'를

이번 행사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가 주 관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 통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색소폰·장구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식, 초대 가수 공연(최유 진·정용주·정소라), 고객 노래자랑, 푸짐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장 내에서는 화순 농산물 홍보 장터가 함께 운영되어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모두 어우러진 하루가 될 것으로기대된다.

박두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전통 시장을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 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건강한 식문화 새 바람… '함평형 위생 두건' 첫 선

국향대전서 시범 착용 호평

함평군이 '함평군형 두건'을 선보이며 건강한 식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함평군은 관광객에게 청결과 신뢰를 주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조리 현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함평군형 위생 두건'을 개발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음식부스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함평군형 두건은 사계절 축제의 도시 함평의 이미지에 걸맞게, 각종 행사와축제장에서 위생 수준을 높이고 청결한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형 공공디자인이다.

특히 (사)한국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회원들은 현재 개최 중인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음식부 스에서 두건을 시범 착용하며 조리·판매 과정의 위생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군은 청결하고 신뢰감 있는 조리 현장을 통해 방 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의생활 문화' 실천 캠페 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함평군형 위생 두건'을 착용한 한국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회원들이 함평국향대전 음식부스 앞에서 포 즈를 취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두건 디자인은 단순한 복장이 아닌, '깨끗한 식문화'를 상징하는 생활형 공공디자인"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가 군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라고 말했다.

- 스య (*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